

# ‘호로록 마시면 바다향 그대로’ 해남 김국을 아시나요?

### 해남군 문내면 임하어촌계 간편식 소비자 선보여 신신한 물김 가공 동결 건조 후 사각 큐브 형태



바닷가 마을에서 즐겨먹던 김국이 간편식으로 출시됐다. 5월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문내면 임하어촌계가 임하도 바다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주식 김을 활용한 ‘바다김 그대로, 김국’ 상품을

이달부터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김국은 김이 생산되는 어촌마을에서 전래 대용 음식으로 물김을 된장에 풀어 간단히 끓여낸 국이다. 김이 생산되는 겨울철, 싱싱한 물김만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김을 직접 생산하는 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다. 김국 상품은 싱싱한 물김을 가공해 동결 건조 후 사각 큐브 형태로 만들었다. 맛내기 양념도 가미돼 있어 뜨거운 물만 부으면 막 끓여낸 김국으로 변신한다. 굴 등 해산물을 더하면 깊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고 국이나 라면, 떡국 등에도 이용할 수 있다. 김국에 사용된 김은 설 전에 수확된 2~3회

차 최상급 물김이다. 임하도에서 전통 지주식으로 생산되는 모무늬 돌김과 해남에서 생산되는 참김을 배합해 사용했다. 임하어촌계는 어촌6차산업을 통해 ‘썬’이마도’를 설립하고,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협업해 이번 김국 상품을 개발했다. 김을 활용한 여러 상품 후보 중 지난해 최종적으로 김국을 선정하고 시제품을 개발,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품평회와 시범 판매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내면 임하도는 우수영 울돌목의 입구에 위치한 연륙섬으로 토종고래인 상괘이가 뛰어드는 청정바다를 배경으로 한 낙조풍경이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있다. 이수철 대표이사는 “해남에서도 최고의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임하도의 김을 이용해 예전 어머니가 해주셨던 김국 맛을 재현해보고자 했다”며 “현지가 아니면 맛보기 힘든 김국을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도 벌써부터 뜨거운 편이다”고 말했다. 임하어촌계의 김국은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기동취재본부

### 완도군, 정원 페스티벌 10월까지 연장한다 지역민 의견 적극 반영, 포토존·화단 추가 설치 등 새단장



완도군에서 개최된 ‘2023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당초 5월 31일까지 개최하기로 했으나 지역민의 큰 호응에 따라 10월 말까지 전시를 연장하기로 했다. 완도에서 개최된 세 번째 전남 정원 페스티벌은 국내 최초로 해변 부지에서 개최된다는 점에 유치 당시부터 큰 기대를 받았다. 이에 군은 기획 단계부터 바다와 정원을 어

우러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바다와 관련된 소재를 정원에 반영하는 등 완도만의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했다. 그 결과, 완도 특산물을 난대 숲 정원에서 즐기는 대표 정원(가든 레스토랑) 1개소, 바다를 조망하는 작가 정원(조망 정원) 4개소, 해수욕장 구명환에서 모티브를 딴 잠여 정원(튜브 가든) 30개소, 완도 읍면을 상징하는 섬자리 정

원(보트 가든) 12개소 등 약 50여 개의 특색 있는 정원을 갖추고 완도만의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페스티벌 현장 전체에 간 인조 잔디는 바다, 튜브 가든 등과 어우러져 색다른 경관을 연출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다. 대표 정원인 가든 레스토랑도 조성 의도와 걸맞게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먹으며 답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는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찾는 장소가 됐다. 군은 정원 페스티벌을 연장하길 바라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장 연장 전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규 화단 및 포토존 추가 설치, 여름꽃 식재 등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버스킹 등 부대 행사도 매달 2회 이상 개최하여 정원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여름철 태풍 등 재해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재정비를 신속히 실시 후 정원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철 군수는 “행사장을 여러 차례 방문할 때마다 정원을 계속 존치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자주 접했는데, 군에서 처음 개최한 정원 페스티벌에 대한 군민의 기대를 만족시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바다와 어우러진 정원에서 군민과 관광객이 힐링하길 바라는 마음에 전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한국국악협회 진도지부, 제44회 남도국악제 최우수상 고수·판소리·무용 부문 대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 성과 거두어

한국국악협회 진도군지부가 최근 장성군에서 열린 제44회 남도국악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진도군지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와 소리의 고장에 걸맞게 여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우선 개인 부문은 ▲고수 부문 일반부 이입숙(대상), 박동식(우수상) ▲판소리 부문 조진

욱(대상) ▲장구 부문 박연희(개인상)씨가 수상했다. 또 단체 부문은 ▲무용 부문 김해숙씨와 회원 7명(대상) ▲남도민요 부문 박영예씨와 회원 4명(최우수상) ▲농악 부문 김남용씨와 회원 46명(장려상)이 각각 수상했다. 특히 전라남도의 국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상 수상자로 김오현씨가 선정돼 진도군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진도=조상용기자

### 강진군, 아이와 군민이 행복한 지역 건설 성큼

강진군은 강진읍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하는 어울림센터와 맑편한센터가 지난해 말에 연달아 착공하며 본격 건축물을 조성 중이라고 5월31일 밝혔다. 어울림센터는 지역주민 역량 강화, 주민 간 공동체 형성, 영화관과 청년창업지원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맑편한센터는 아이와 부모의 보육 시설, 청소년의 쉼터로 기능해, 강진군민의 복지 생활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어울림센터는 강진읍 동성리 192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전체면적 3,728.30㎡ 규모로 2023년에 준공 예정이다. 지상 1층에는 건강증진실, 헬스케어실, 공유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을 조성하고, 2층에는 분임토의실, 창업준비실, 상담실 등이 들어서 청

년 계층과 평생 학습을 지원한다. 3층은 강진군민의 오랜 소망이던 영화관이 들어서고, 4층은 요리 교실로 활용된다. 맑편한센터는 모든 세대에 걸친 가족 친화적인 생활시설로, 설계 초기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참여단과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지상 1층에는 육아돌봄지원센터, 커뮤니티존을 조성해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보육 시설과 특성화 프로그램실로 활용한다. 2층에는 청소년실내체육시설, 어린이문화체험을 위한 실내놀이존, 가족형 도서관이 운영되며, 3층은 청소년 동아리실 및 스튜디오, 평생학습장 및 시니어 프로그램이 가능한 다목적생활공간으로 꾸며진다. 강진=김영일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